

# 세월호 원혼... 4월을 기억의 시간으로

### 전북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3주기 '애도와 기억' 주제 다양한 추념 행사 진행

“진실은 다시 떠오른다.” 전북도교육청이 4·16세월호참사 3주기를 맞아 4월 한달을 추념의 달로 정하고 '애도와 기억'을 주제로 다양한 추념 행사를 진행한다.

4월 4일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가족 40여명은 팽목항을 찾아 분향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할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해마다 이 기간에 팽목항을 방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 등을 만났다.

그리고 13일 오후 4시에는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4·16세월호참사 진실과 기억'을 주제로 권영빈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소위원장, 박주민 국회의원과 도내 고등학생 1백20여명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념식은 토요일인 15일 오후 6시부터 80분 간 도교육청 앞 광장에서 열린다.

이날 추념식은 식전행사와 퍼포먼

스, 추모시 낭송, 상황극, 유가족과의 만남, 합창 등이 엄숙하게 진행된다.

아울러 도교육청 청사 1층 갤러리에서 도내 미술 작가들의 희생자 추모 작품을 전시회가 열리고 같은 장소에 '하늘나라 우체통'을 설치, 희생자들에게 추모 편지를 써서 넣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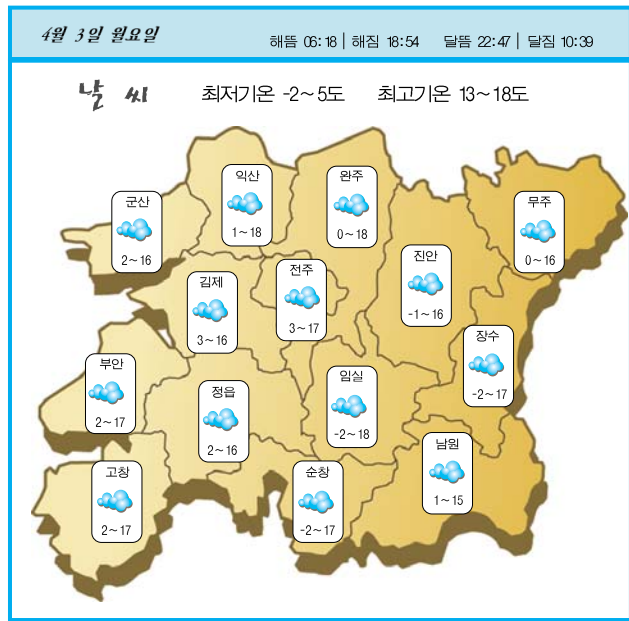
또한 건물 외벽에는 학생들이 그린 세월호 추모 그림 2천여점을 모자이크

형식으로 대형 협동 걸개그림'이 설치된다.

각급 학교에서도 4월 한달 동안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현수막을 걸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세월호 참사 계기교육을 실시한다.

애도 리본달기, 추모글 이어쓰기, 추모꽃동산 만들기, 안산 분향소 및 팽목항 방문하기, 토론회 개최 등 자체적으로 추모행사가 진행된다.

/정해은기자



**한국농어인협회 전북협회 12·13대 협회장 이·취임식** (사)한국농어인협회 전북협회 12·13대 협회장 이·취임식이 지난달 31일 전주라온웨딩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 박철용 국장, 한국농어인협회장을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지부장, 전라북도 장애인단체장, 회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 전북대 청소년 창의기술인재센터 공학동아리팀 모집·운영

전북대학교 청소년 창의기술인재센터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고교생들의 상상을 현실화 하고 미래를 이끌 공학도를 육성하기 위해 창의적인 공학동아리팀을 모집, 운영한다.

창의공학동아리는 2011년부터 창의 과학동아리-청소년캡스톤디자인의 명칭으로 운영된 융합형 프로젝트 중심의 작품 제작 프로그램으로 대학 연구실과 연계해 7개월 동안 작품 설계 및 제작 활동을 거쳐 최종 경진대회가 진행된다.

창의공학동아리는 팀별로 고교생 4~5명이 팀을 이뤄 산업 전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작품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중간 보고회, 최종 경진대회 순으로 단계별 멘토링 및 융합기술 특강 등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참가팀들에게는 재료비 50만원이 지원되며 경진대회를 통한 우수상 시상 및 포상금도 주어진다.

최고상인 금상에게는 전북대학교 총장상을 수여하고 별도로 연구인재 우수상 시상 및 포상도 이뤄진다.

또한 공학 분야 최대 행사인 공학교육 페스티벌 참가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공계열 진로 및 비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모집기간은 4월 19일까지이며 호남권역 내 각 고등학교별 1팀 이내로 지원할 수 있고 총괄 지도 교사 지정이 필수다.

신청 방법은 전북대학교 청소년 창의 기술인재센터 홈페이지(<http://tstar.or.kr/tree/jnu/>) 공지사항에 첨부된 참가신청서, 작품제작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을 다운로드 작성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전북대 청소년 창의기술인재센터(063-270-3695).

/정해은기자

### 도교육청, 일반고-대학 연계 주말 강좌 개설

전북도교육청이 일반고와 대학을 연계한 주말 강좌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영상시각디자이너 등 8개 강좌에 일반고 재학생 218명이 참여하며 강좌별로 7월까지 매주 토요일 12회차, 총 48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일반고 재학생 중 예술체육과 기초 직업분야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전주비전대학교 등 도내 4개 전문대학과 연계한 주말강좌를 4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전주비전대학교가 영상시각디자이너, 피부네일, 태권도, 인턴십교양 등 4개 강좌를 비롯해 원광보건대학교 요리사, 메이크업네일, 전주비전대학교의 제과제빵, 군산대학교 의식조리 등 도내 4개 대학에서 총 8개 강좌를 개설했다.

제과제빵 강좌는 신청 학생이 많아 2개 반으로 편성, 총9개 반이 운영된다. 도교육청이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실험실습 재료비 명목의 일체의 잡부금을 부과할 수 없다.

총수업 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전라북도교육청 주관한 일반고-연계 주말 강좌 과정을 이수함'이라고 담임교사가 입력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특성화? 다양화로 일반고 교육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다양한 진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진로 역량 및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 전북대, 유망 예비창업자에 최대 1억 지원

### 오늘부터 21일까지 모집... 멘토링·교육 프로그램도 지원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유망 창업 아이디어 및 고급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3년 연속 선정돼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북대가 창업아이템 사업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하는 것.

지원 대상은 지역에 제한 없이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팀), 또는 창업 3년 이하 기업의 대표자다.

지원기간은 오늘부터 21일까지며 K-startup([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예비 창업자에게는 기술분야에 최대 1억 원, 사업모델 분야에서 최대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멘토링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도 다채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대는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창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5일과 11일, 17일 오후 2시 학습도서관 3층 창업지원단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는 창업지원단 063)219-5467

/정해은기자

### 고창 아산면 가상현실(VR) 안전체험관 조성

전라북도교육청은 고창 삼인종합학습장을 리모델링해 가상현실(VR) 기반으로 소규모 안전체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고창군 아산면에 위치한 삼인종합학습장 시설중 일부를 활용하여 가상현실 체험관 교통안전 체험관, 응급처치 체험관 소방방재 체험관, 방시능 교육관 등이 설치된다.

가상현실 체험관은 HMD를 활용하여 지진, 화재, 방시능 누출 사고 등 재난상황을 체험할 수 있고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학생들에게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하여 실제 자동차와 가상현실을 활용하여 충돌, 전복체험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실습 및 소화기 사용방법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공간이 설치되며 방시능 교육관에서는 방시능 누출에 따른 피폭 피해와 누출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교육부의 소규모 안전체험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금 15억원을 지원받아 추진된다.

/정해은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바꾸는 힘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원천 기정의 '보급자'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